

재정건설위원회
해외비교시찰(호주) 귀국 보고서



담 당	의정담당주사	사무국장	부의장	의 장
재정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서대문구의회

■ 目 次 ■

제1장 해외 비교시찰 개요

- 1. 해외 비교시찰 개요 1
- 2. 시찰단구성 및 업무분담표 2
- 3. 비교시찰 일정 3

제2장 방문국가의 특징

- 1. 호주(시드니) 4

제3장 주요기관등 비교시찰

- 1. 시드니 캔터베리 시의회 방문 7
- 2. 와라감바 델 방문 10
- 3. 올림픽공원 및 습지공원 방문 11
- 4. 기타 주차시설 등 13

제4장 연수후기 15

1. 해외 비교시찰 개요

다양하게 급변하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화된 국가의 지방자치 제도와 도시환경, 공원시설 및 다양한 전통문화와 역사 등을 비교시찰하여 폭넓은 견문과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구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의원의 국제화 능력 제고
- 해외 선진 지방의회 의정 및 자치단체의 행정 견학을 통한 우리구 의정의 선진화와 지방자치의 자율성 실현에 기여
- 도시환경, 건설 교통 등에 대한 비교견학으로 유익한 지식 습득을 통한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도모

□ 추진개요

- 시찰기간 : 2010.10.29(금) ~ 11.3(수) 【5박 6일】
- 시찰국가 : 호주
- 참가자 : 12명 (의원 8명, 수행공무원 4명)
- 주요 시찰지
 - ⇒ 시드니의 캔터베리 시청 및 시의회
 - ⇒ 와라감바 댐
 - ⇒ 올림픽공원 및 습지공원
 - ⇒ 기타 공용 주차장 등

2. 시찰단구성 및 업무분담표

【의원 - 의장 및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고문

황춘하의장

단장

오성자위원장

간사

김호진의원

분담 업무	의원	수행 직원
지방자치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황춘하, 김호진	나윤수, 정환온
도시공원 등 재정운영에 관한사항	이문복, 백인기, 김다순	곽태성
도시환경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오성자, 류상호, 이기돈	성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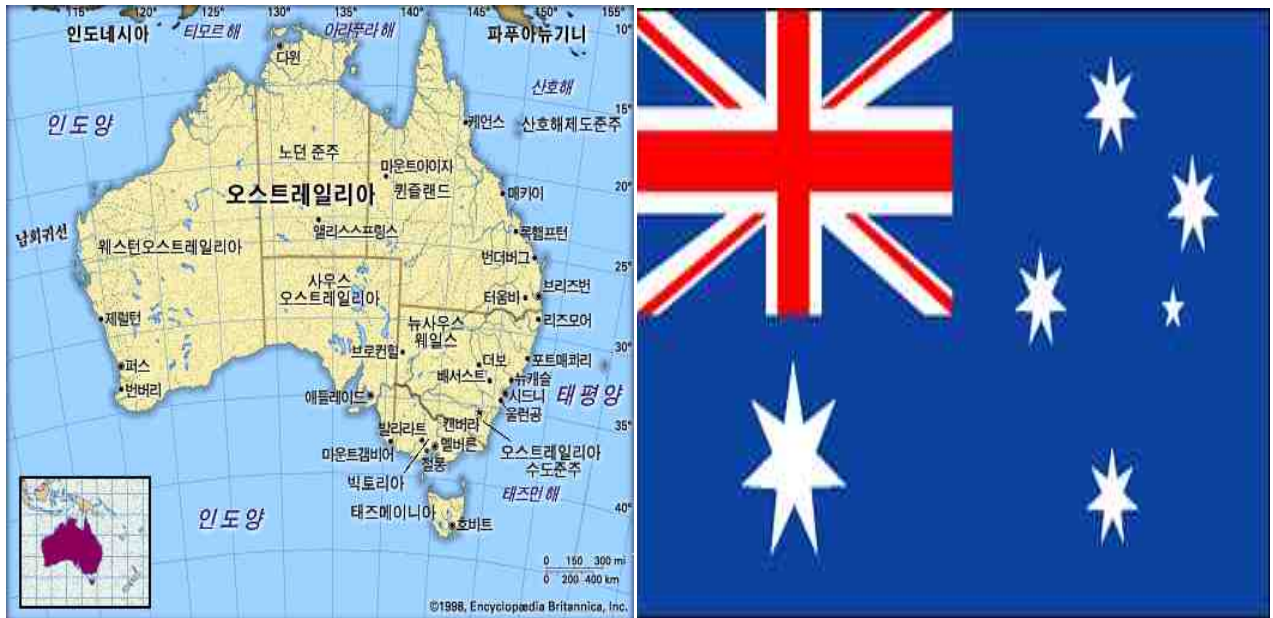
【수행공무원 업무】

수행 직원		수 행 업 무	비고
직 급	성 명		
행정7급	나 윤 수	* 의원 수행업무 세부추진사항 총괄 * 예산집행 및 정산	
행정7급	곽 태 성	* 의정활동 보좌 * 방문지 자료수집	
별정7급	성 기 주	* 의원의 의정활동 사진촬영, 자료수집 * 방문지 기념품 및 홍보책자 등 준비·전달	
행정7급	정 환 온	* 지방자치제도와 의회 운영	

3. 호주 비교시찰 일정

일자	행선지	교통편	시 간	여 행 일 정	식 사
제1일 (10.29)	인 천	OZ601	20:30	◦인천국제공항 출발 - 비행시간 : 약 10시간 30분	석 기내식
제2일 (10.30)	시드니	전용차량	전일	◦시드니 공항 도착 후 연계수속 ◦시드니올림픽공원 견학 ◦국립공원 운영 및 실태 견학 - 환경보호 및 편의시설 등 ◦석식 후 호텔 투숙	조 기내식 중 현지식 석 뷔 페
				novotel olympic PARK HOTEL CLASS	
제3일 (10.31)	시드니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공용주차장 관리실태 조사 ◦호주의 야생동물 보호 정책 조사 - 생태계의 유지현황 및 재정 운영상태 ◦석식 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뷔페식
				novotel olympic PARK HOTEL CLASS	
제4일 (11.1)	시드니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캔터베리 시청 및 시의회 방문 및 간담회 -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비교 ◦바이센터니얼파크 습지공원 - 습지복원 프로젝트 및 보전활동 이해 ◦석식 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BBQ 석 뷔페식
				novotel olympic PARK HOTEL CLASS	
제5일 (11.2)	시드니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오페라하우스 - 디자인과 건축물의 이해 ◦상업지구 쇼핑물 발전 사항 시찰 ◦호텔 휴식	조 호텔식 중 한정식 석 선상식
				Snovotel olympic PARK HOTEL CLASS	
제6일 (11.3)	시드니 인천	OZ602	10:10 19:40	◦호텔 조식 후 ◦시드니 국제공항 출발 - 비행시간 약 10시간 30분 ◦인천국제공항 도착	조 호텔식 중 기내식 석 기내식

4. 방문국가의 특징



● 호주는 인구 약 2,200만명으로 6개 주와 2개의 특별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다(정확한 국가 명칭은 Commonwealth of Australia). 인구는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빅토리아 (Victoria), 퀸스랜드 (Queensland), 서호주 (Western Australia), 남호주 (South Australia), 태스마니아 (Tasmania)순이다. 호주는 해안을 접해서 도시들이 발달했는데, 가장 큰 도시는 시드니 (Sydney)로 인구가 약 460만이고,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 (Canberra), 정확한 명칭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ACT)로 인구는 31만이다.

- 수 도 : 캔버라(Canberra, 31만명)
- 면 적 : 7,682,300km²(한반도의 약35배)
- 인 구 : 2,200만명
- 민 족 : 영국계(80%), 유럽 및 아시아계(18%), 원주민(2%)
- 언 어 : 영어
- 종 교 : 기독교(성공회 24%, 천주교 26%, 감리교 2.6%, 연합회 7.6%장로교 3.6%, 힌잡정교2.9%)

가. 지리

- 호주의 면적은 769만 km²로 한반도의 약 35배이며, 총면적의 90% 이상이 사막이나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도시들은 해변가의 수목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균고도는 300m이다.

나. 기후

-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계절이 한국과 정반대이다. 봄은 9-11월, 여름은 12-2월, 가을은 3-5월, 겨울은 6-8월이며, 여름은 우기로 평균기온은 27℃, 겨울은 건기로 13℃의 평균기온을 나타낸다. 전체 대륙이 남위 10.41° - 43.39° 에 걸쳐 있어 여러개의 기후대를 가지고 있으며, 북쪽에서부터 열대 우림기후, 열대성기후, 아열대성기후, 온대성기후로 나뉘어 진다. 대륙의 중앙부는 사막성 기후를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건조하며 일교차가 큰 것이 기후의 특징이다.

다. 정부

-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현재까지도 국가형태가 형식상 입헌군주제의 영국여왕을 수장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이, 6개 주정부는 총독(Governor)이 대표하고 있다.

라. 경제

- 경제적으로는 1인당 GDP USD 50,000 로 한국에 비해 확실히 잘 사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득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바탕으로 광물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산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농산물이 26%, 광물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공산품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GDP에 대한 산업별 비중이 농림수산업 및 광업 및

제조업이 적고 서비스업이 약80%이상의 3차 산업 중심구조로서 제조업과 IT 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 하지만 IT산업의 잠재력이 큰 나라다.

한국은 호주의 2위 교역상대국이며 3위 수입국, 8위 수출국으로 이제까지 주요 수입품으로는 석탄 및 코우크스(17.8%), 귀금속(16.6%), 철광(9.4%) 등과 축산물, 곡류 등이며 주요 수출품으로 자동차(18.1%), 금속광, 설(13.4%), 무선통신기기(8.2%), 가정용기기(4.3%) (이상 외교통상부 '99 자료) 등 대부분 제조업 위주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마. 사회

- 전체인구의 98%이상이 백인이며, 사용언어는 영어로 영국영어가 가깝다. 1960년부터 실시된 복지정책의 성공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 보존과 국민건강 복지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바. 화폐

- 호주 달러를 사용하며, A\$로 쓴다. 지폐는 \$100, \$50, \$20, \$10, \$5의 5종이 있으며 주화로는 \$2, \$1, 50¢, 20¢, 10¢, 5¢, 1¢가 있다. 호주준비은행은 은행권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2년 7월부터 종이 대신 폴리머(플라스틱 재질)로 발행하여 제조비용이 다소 많이 들지만, 위조가 어렵고 내구성이 강하며 청결성도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한번 접히면 잘 펴지지 않고 열에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가 만들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이 화폐제조 기술을 뉴질랜드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여 뉴질랜드 또한 동일한 재질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사. 체험물가

- 호주에서는 사치품이나 기호품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담배 한 갑당 1만원~2만원, 맥주한잔에 7천원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다.

○ 주요기관등 비교시찰

● 시드니의 켄터베리 시의회

시의회는 시장을 포함해서 총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 임기는 4년이고, 이전에는 1년으로 돌아가면서 시장을 맡고 있었으나, 현재는 의원과 같이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는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만 켄터베리 시의회는 의원이 시장을 겸하고 있어 견제의 의미가 없으며, 또한, 시의원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교통비 수준)만 지급받아 우리나라의 초창기 명예직과 같으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의원 2~3명과 공무원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소규모의 소위원회 의정활동이 약 30개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직접 주민과 접촉하여 민원등 안건이 채택되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우리의회에서도 호주의 켄터베리 시의회처럼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소위원회활동을 활성화한다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선진 시의회 견학을 통하여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라고 생각한다.

◆ 인구 : 14만명(150개국 이민자로 구성)

- 이민자가 50%이상 차지하고 우리나라 교민은 2%

◆ 공무원수 : 650명

◆ 예산규모 : 1,000억(50%가 인건비)

◆ 1879년 지방자치 시작

- 1993년부터 시의원이란 명칭 사용(이전 마을 장로)

◆ 의회운영

- 의원수 : 10명(의원 9명, 직선제 시장 1명)

- 임 기 : 4년

- 급 여 : 무보수

- 정당공천 : 정당공천 있음

- 의원직업 : 주로 은퇴한 사람, 시장은 주정부 국회의원 겸직

- 회 의 : 의회안건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수시로 열린다.

· 회의시간 : 저녁 6:30~21:00

◆ 의회운영의 차이점

- 보건복지 : 주정부에서 부담 및 관리

- 복지연금 : 연방정부 부담 및 관리

- 보건복지 이외 사무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주로 집행과 견제 겸함

- 예산도 시 직원과 같이 편성하고 세율도 의회에서 결정 함

- 인·허가도 의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 함(주민 의견 반영)

※ 건축허가의 설계 변경이 어렵다. 설계를 변경하려면 다시 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런 점들은 주민의 의견을 중시하는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것 같다.

◎ 캔터베리(CANTERBURY) 시의회 방문



(방문기념 사진 / 회의장)



(의장님과 남경국의원)



(캔터베리 시의회 회의장 및 남경국의원 현황설명)

● 와라감바 댐

시드니 서쪽 약65킬로미터에 위치한 와라감바강의 협곡에 위치한 댐은 세계에서 가장 큰 호주 국내 물 공급 댐 중 하나이다. 시드니에 물 공급을 이 댐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댐들이 열 개 이상 있어 물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댐과 연결한 수도관을 시내 대부분까지 밖으로 노출하여 노후관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어 맑은 물 공급에 유리하며 원래 호주는 물 부족국가로 다양한 물 공급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 예로 농장마다 개인이 소형 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사막지역에서는 우수를 받아 여과한 후 식수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가정, 상가 각 건물에 화장실 물은 재사용한 물을 사용하고 소변기 및 대변기에 물 양을 조절하는 장치가 다 부착되어 있어 물을 아끼고 절약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제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와라감바 댐 방문



(와라감바 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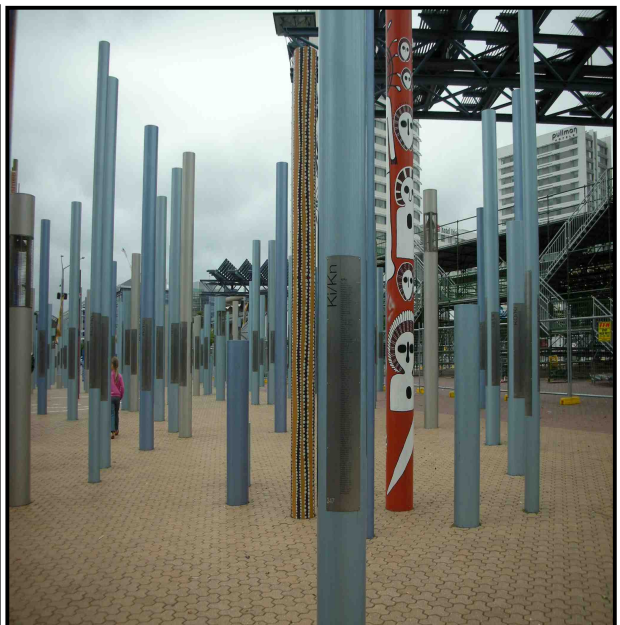
(와라감바 댐 현황설명)

● 시드니올림픽공원 및 바이센터니얼파크 습지공원은 2000년 남·북한이 공동으로 입장하고 우리의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올림픽이 열렸던 시드니올림픽공원은 환경올림픽을 표방하며 준비하였던 시설답게 공원과 시설이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호주인의 의지가 보였다. 올림픽 주경기장 공사현장에서 멸종위기 개구리(그린앤골든벨)가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건설하였으며, 공원 전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공원에 조성된 습지공원도 자연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특히 30,000명의 자원봉사자의 이름을 새긴 탑을 만들어 자원봉사 정신을 기리고 있었다. 현재는 주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뉴질랜드은행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어 올림픽이 끝나고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와 비교가 되었으며,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가 접목해야 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원내에 전기 및 수도시설을 경비한 불고기 조리대가 설치되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점은 우리의 공원에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시드니올림픽공원 방문



(올림픽주경기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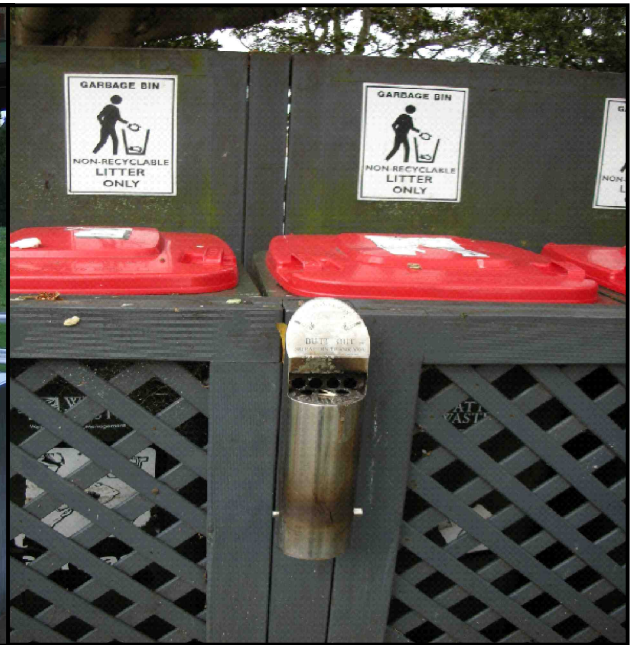
(공원내 자원봉사자 탑)



(바이센터니얼파크 습지공원 방문)



(공원내 음식조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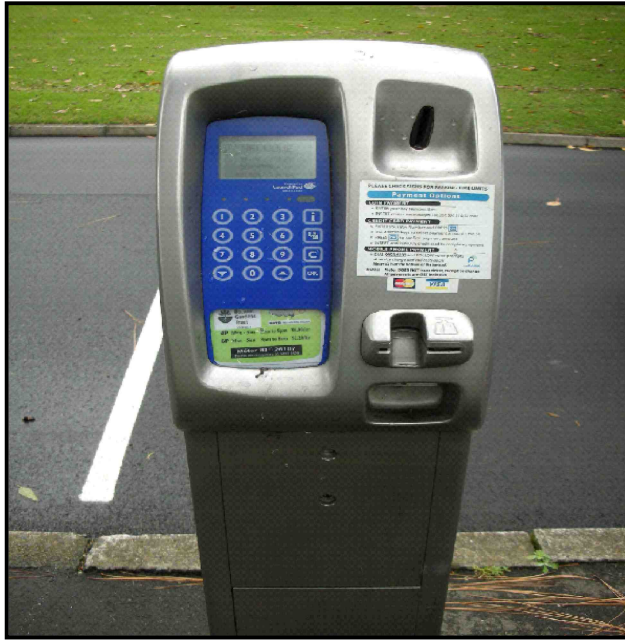
(공원내 휴지통)

시드니의 도시곳곳에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전체가 공원화 되어있는 등 사람을 우선으로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었다.

● 주차시설 및 공용주차장은 노상 주차장 시설로 구획마다 주차미터기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주차를 할 경우에는 동전을 투입한 시간만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차시간은 30분에서 4시간까지로 제한을 두었다. 평일인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8시에서부터 오전12시까지, 일요일과 국경일등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전을 투입하지 않고 주차를 하거나, 동전투입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원이 불법주차티켓을 발부되며 한번 불법주차티켓이 발부된 차량이 계속하여 부정 주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전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차 불법주차 티켓을 발부 차량이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24시간 주차단속을 한다. 주차시간은 30분허용시간, 1시간허용시간, 4시간허용시간등 시간별로 구분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엄격한 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공용주차장은 우리 공용주차장과 유사하여 시간제, 주 및 월단위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특별하게 자전거는 무료로 오토바이는 차량의 60%으로 함께 이용하고 있어 우리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었으며,

기타 도로 등이 사람우선 위주로 편리하게 되어있으며 도로는 좁아도 인도가 넓은 것이 특징이고 교통신호체계도 보행자우선으로 보턴식으로 되어있는 등 모두가 신호체계를 확실하게 준수하고 있다. 또한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인도, 화장실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도심곳곳에 주·정차금지 및 무인주차구역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교통표지판 등이 잘 설치되어 이용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 이러한 도로·교통 정책은 우리나라가 접목하여야 할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었다.



(주차미터 요금기)



(공용주차장내 자전거보관대)